



SK임업, 에티오피아 황무지 '숲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전파
 SK가 에티오피아에서도 숲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확대에 나선다. SK임업은 에티오피아 남부 소재 커피 농장에 3000여평 규모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21만여평의 부지에 유칼립투스 등 7만 그루를 식재해 산림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엔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 심우용 SK임업 대표, 쉬페로 쉬구페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SK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6·25 참전유공자 위문품 나눔활동
 NH농협금융지는 지난 16일 6·25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용산구 소재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광수 회장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6.25 부부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우리농축산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회장(왼쪽)이 오전 영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LGU+, 통신업 특화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공 인증 획득
 LG유플러스는 통신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체험 교육장을 개관하고, 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R&D센터에 연면적 352㎡ 규모로 마련됐다. 시설 오픈 첫해인 올해는 LG유플러스 직원과 협력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자매사까지 우선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삼일회계, 용산교육복지센터 환경개선 후원
 삼일회계법인인은 지난 15일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용산교육복지센터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교육복지센터 박수미 센터장(왼쪽)과 삼일미래재단 정연성 사무총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직위 승진 △빅데이터전략담당관 박은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본부장 승진 △경영본부 류영미 △디자인본부 김승배 △팀장 승진 △공예본부 공예문화팀 강혜원 △공예본부 공예기반팀 이선영 △공예본부 공예산업팀 홍승호 △디자인본부 디자인문화진흥팀 이홍규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안영재
 군 법무사 사무장·순옥(유성상사 대표이사)씨 부친상, 임병철(전 하나원장·오두산 통일전망대 관장)씨 장인상 = 16일 오후 3시30분, 세종영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 010-6203-3665
 ▲황정자씨 별세, 정혜원(아동문학가·박경리문학공원 소장)·정재환(미국 K-Radio 객원논설위원·전 경기일보 경제부장)씨 모친상 = 17일 오전 6시 45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 033-760-4639
 ▲이운상 씨 별세, 이정형(천일엔지니어링 이사)씨 부친상, 이종필(경향신문 정보기술팀 부장)씨 장인상 = 16일 오후 5시30분,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30분 ☎ 031-902-4444
 ▲양우석씨 별세, 양은주(전업주부)·순호(김춘

KBS의 도 넘은 삼성 때리기



윤 위 중 역
 잠시 심포

공영방송이란 한국방송공사(KBS)의 삼성 때리기가 지나치다. 며칠전 KBS는 국내 저널리즘을 비판한다는 토크쇼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의 낚시나 표정을 봤을 때 비방을 넘어 비아냥거림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토크쇼 패널들은 삼성전자의 특징인원을 이름까지 거명하며 한겨레 기자 출신이 삼성에 입사한 것을 알게 됐다며 “너무 충격이었고 슬펐어요”라고 표현했다. 다른 패널은 해당 임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주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 장면이 슬픈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라고도 했다. “그 현장에 다른 기자들이 가방을 들어주는 분을 보면 부럽다고 생각할까, 부끄럽다고 생각할까 그것도 궁금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기자로 있다가 기업체 홍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슬프고 충격적인 것인가. ‘기자=언론은 고귀한 직종이라 기업체 가면 슬픈 일이 되는 것인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서 오너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인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슬플수도 있고 충격일수도 있다. 한 때 삼성에 비판

적이었던 기자가 거액의 연봉에 팔려갔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겨레가 자기 회사 기자를 삼성에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 삼성의 의지가 맞아 떨어져, 10년도 전에 이직해 임원으로만 수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와서 대놓고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까지 보여주며 한겨레 출신 기자라고 밝힌 것은 아무리 봐도 정도가 지나치다.

해당 임원이 범피자도 아니고, 범죄 혐의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단지 한겨레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뭔가 잘못된 일, 비굴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한다는 건 공영방송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한다며, 삼성의 눈치를 보는 한국의 언론들을 비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징인의 명예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 정말 참기 힘들고 불편했다.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벤처기업에도 기자들이 많이 이직해 있다. 한겨레뿐 아니라 고귀하신 KBS에서는 잘 모르는 중소 매체 출신의 기자들도 많이 이직한다. 거꾸로 기업에 들어갔다기 기자를 해보겠다고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개인 사정이다. 이직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들던 소리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패널들 인식 저변에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고귀한 언론사 기자가 대기업에 들어가 총수 가방이나 들어준다니 한심하다는 괴상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방송사 기자들은 정권에 잘 보여서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패널들 말처럼 ‘달콤한 제안’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기자들도 있지만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기자들도 있다. 그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기자는 죽을 때까지 기자로 살고 종업원은 죽을 때까지 종업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KBS는 공영방송이다. KBS는 아무리 방만경영을 해도 국민에게 거의 강제로 거둬가는 시청료로 적자를 채워주니까 월급 걱정 안하고 우아한 말만 하고, 사장을 임명하는 정권의 눈치만 보면 그만일게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는 민간기업이다. 기자들이 사회정의를 외치더라도 누군가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다. 생계를 이유로,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할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아무리 토크쇼라는 형식을 빌어도 공영방송에서 내보낼 내용이 있고, 개인 동영상채널에서 내보낼 수준의 프로그램이 있다. 내가 낸 시청료가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니, 정말 시청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산부장 yhj@metroseoul.co.kr

6·15남북선언, 폭발과 함께 사라지다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수위 높은 발언에도 낭만적 기대감을 잃지 않았는데 말이다.

북한은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파괴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과 개보수 비용으로 약 178억 원의 돈을 들인 건물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폭삭 내려앉은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통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국군 장병들이 휴가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강변 일대에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지난 5일 현충일을 앞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만 현충일 기념 플래카드를 걸었던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이를 본 일부 장병들은 ‘제1차연평해전 승전도 6월 15일인데...’, ‘반쪽만 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찾아 볼 수 없었다. 평화는 ‘평(甯)’하는 폭음과 함께 사라졌다. 이날 국방부는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배치를 하겠다는 북한 총참모부의 발표에 항의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써,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수년 간 국방부 청사를 오고가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군 당국으로부터 들은 말이 ‘대가를 치르겠다’였다. 이제는 말풍선 대신 액션을 보여줄 바란다. 안보를 외쳤던 보수정부도 액션을 보여준 적이 없다.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의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포격에 대해 우리 군은 1시간이 지나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대포병 레이더와 연계된 K9 자주포라면 수분 내 원점을 타격할 수 있었다. 평화와 국방은 입으로 하지 않는다. 술취한 취객일 수록 목소리도 크고, 입으로 싸운다.

이제는 무모한 도전을 해오는 상대에게 ‘심장 쫓겨간’ 액션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왼쪽 뺨 맞고도 오른쪽 뺨 갖다 대는 바보짓은 끝내자.

/captainm